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2.09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이준형 영상의학과 진료부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의료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수료
- 동아대학교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 역임
-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역임

- 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부회장
- 전)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
- 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회장
- 전) 대한초음파의학회 감사
- 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고문

이준형 교수 초빙 진료로 갑상선센터 특화진료

갑상선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어로는 망가지다, 스트레스, 부작용, 체중증가, 불안, 피로, 위험, 장애 등등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리며 검색합니다.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이상 또는 갑상선결절(혹은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나서죠. 그리고는 갑상선에 대한 긍정적인 대담을 듣길 원합니다. 갑상선에 도움 되는, 정상적, 효과적, 좋은 음식, 조기발견, 적극적 등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원하게 되죠.

갑상선의 질환은 크게 기능이상과 결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이상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갑상선 호르몬과 관계가 있죠. 갑상선의 기능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 내에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혈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결절인데요. 갑상선 세포의 이상증식으로 조직 한 부위가 커져서 혹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양성결절과 악성결절로 나누며 악성결절은 암을 의미합니다. 양성결절 또한 딱딱한 고형성결절과 액체인 낭종(물혹)으로 구분됩니다.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앞선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질환 중 많은 경우가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문제는 갑상선 결절입니다. 결절은 경과관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거방법은 외과적절제술과 고주파와 에탄올 같은 시술인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 무조건 비수술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른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최선의 회복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갑상선센터는 갑상선 진료와 증양치료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료진들이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진료를 다 함으로써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갑상선결절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에서 의뢰를 해올 만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해 6월에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진료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달 9월에는 갑상선영상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동아대. 해운대백병원 교수를 역임하신 이준형 교수님을 초빙하여 진단과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준형 교수님은 부산에서 갑상선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열악한 2009년, 갑상선분야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을 갑상선 한 길에 전념하셨습니다. 부산·경남 갑상선영상의학회 초기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회장,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갑상선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퇴임 후 해운대백병원에 5년간 진료를 보면서 갑상선과 두경부 초음파 영상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준형 교수님을 초빙함으로써, 갑상선과 관련된 기능이상, 결절에 대한 진단 및 비수술적 치료 등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가 가능한 갑상선중점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2001~2020 BorgWarner TS Korea, Finance Director
- 2000~2001 VOLVO 건설기계 자금부장
- 1994~2000 삼성중공업 유럽지사(영국, 화란) 재무담당 차장
- 1984~1994 삼성중공업 경리사원 ~ 경리과장

주요경력

- 2001~2020 한국보그워너트렌스미션(충북 음성공장) Finance Director
- Profitable growth 원가, 성장 두 가지 축 동시 추구, 두 자리 숫자 이익률과 매년 성장률 20년간 유지
 - 보그워너 한국 국내 7개 법인 재무 책임자 겸직(Direct report to BorgWarner 미시간주 본사)
 - 공장 원가제도 개선으로 월별 손익 전망 용이(적정재고 설정, 저장품, 재공품 수불 방식 개선)
 - DCT (Dual-Clutch Transmission) global 사업본부 Finance Director - 신규사업(중국, 독일, 멕시코) 중국공장 사업계획 수립 2021년 BorgWarner DCT 매출액 1.5조원으로 성장
 - 보그워너그룹 RAT(전략적 자원배분 훈련) Risk Strategy Model (RSM), 재무/원가 아시아 지역 대표강사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지역 기술 핵심간부 재무역량강화 13년간 1300명 교육 / Profitable Growth, Quotation, Cost management, Working Capital, Inventory control, 투자, 생산성 등
 - ERP 전사적 자원관리 도입 주관 2회 (SAP, MOVEX)
- 1994~2000 삼성중공업 유럽지사 파견근무(재무, 원가, 자금, 인사, 전산, 영업관리) 책임자
- 1984~1994 삼성중공업 국내
- 재무, 원가, 세무, 결산 삼성그룹 최초 재무분야 무전표제도 도입

교육, 자기개발

- 2022 표지 "달려라 외길인생" 글로벌기업 재무관리 실무(재무관리, 원가관리, 수익성관리)관련 출판
- 2021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전문)
- 2014 서강대학교 특수대학원 - 코칭전문가 코스(3개월) 이수
- 2000 Delta/New Port University (화란, 영국) 경영학 석사(파트타임 이수)
- 1984 경북대학교 경영학 학사

보유 핵심역량(Core Competency)

- 내부회계통제제도 구축(은행관리 포함) - 당사 국내 6개 법인 구축/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병원회계에 적용가능 특히, 단기간에 매출규모가 급성장해 내부관리가 취약한 기업에 적용하면 큰 효과
- 원가제도 구축, 전략 수립,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수주에서 원가전략 우위 전략(Profitable Growth)
- 재고자산, 재공품, 원부재료의 안정적 관리로 재고자산 및 재고원가가 월별 손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월차결산 표준보고서 완성, 일정기한 내(D+4), 월차손익 및 주요 운영지표 경영진에게 보고 체제 구축
- 신규 투자(Capex)사업 타당성 검토
- 환리스 리스크 관리(헤지)
- 기업운영관련 각종 법규(회계, 법인 신규설립, 법인전환, 재무, 세무, 자금, 미국 부패방지법, 미국 부정회계 방지법, 미국식 ESG관리)
- 법인 설립, 기존 법인 형태 전환(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청산
- 국세청 세금 결정청구

기타

- 재무결산 보고시스템/HFM(Hyperion Financial Management), RSM(Risk Strategy Model), PPT, Excel
- 영어 능통(말하기, 쓰기), 중국어 초급(말하기)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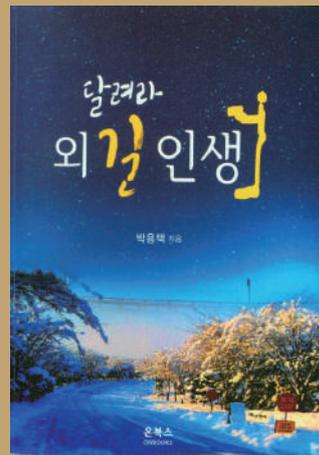
박용택

경영지원센터장

경영분석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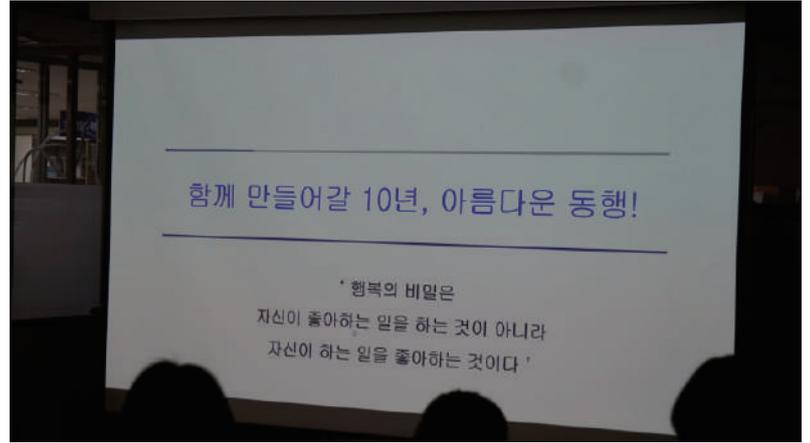
경영지원센터를 보다 체계화하고, 본원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인 경영분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경영지원센터와 경영분석실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신 올 한해의 단기목표를 먼저 성장발판을 만들기 위한 경영지원센터 직무 인프라 구축예정이고, 다음으로 경영분석보고서의 효율적 작성 및 정도향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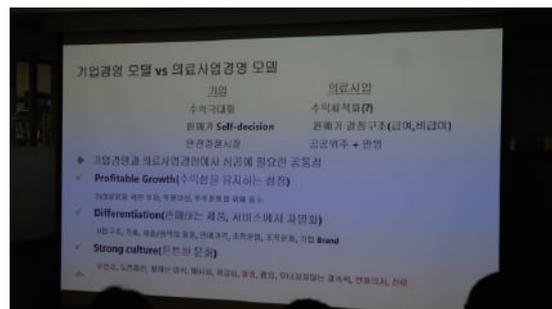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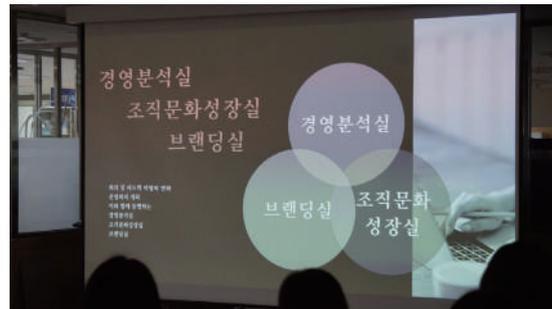
박용택 센터장님의 저서
「달려라 외길인생」 / 출판사 온북스

나행 리더스 미팅 (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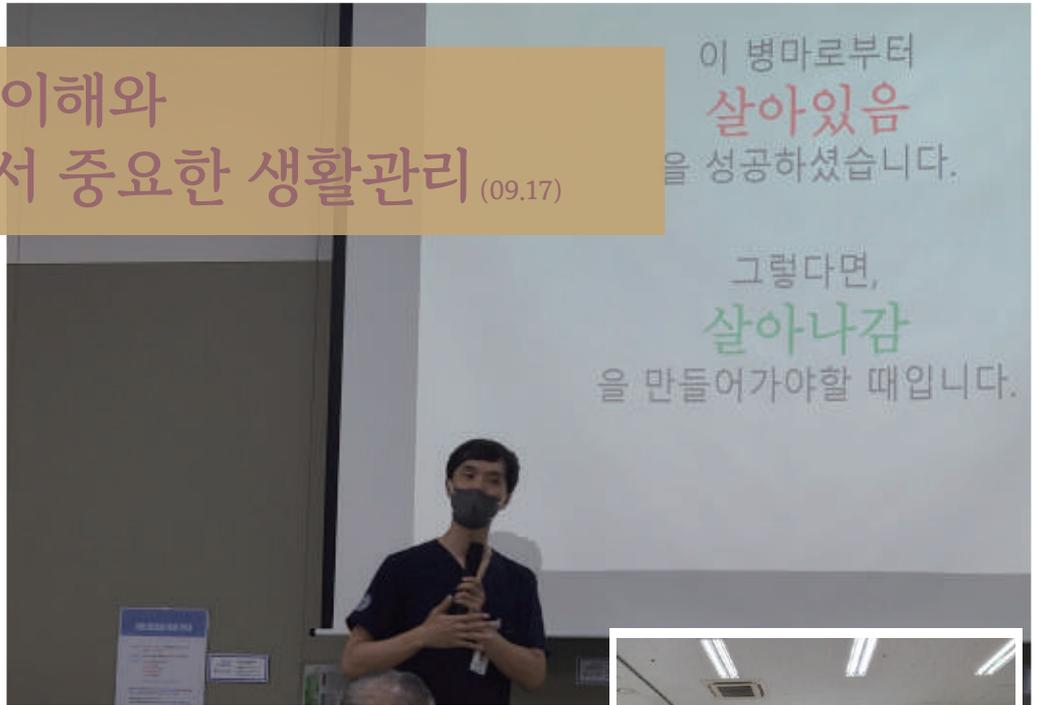
각 팀의 일정 직책자 이상(팀별 인원, 상황에 맞게끔)을 대상으로 매월 나행 리더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100여명의 직책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정식 출범하는 3실(조직문화성장실, 경영분석실, 브랜딩실)에 대한 소개와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어 신규 의료진 소개 및 경영지원센터장님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활치료의 이해와 재활과정에서 중요한 생활관리 (09.17)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님이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전 강의와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여 강의 내용에 차별화를 두었으며 백영수 팀장님만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참여자 및 보호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 강사님이 질병 발병 후 강사로의 삶을 시작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본인의 장애 수용 과정을 참여자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장애를 넘어 일상의 삶으로 (09.24)



외래환자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방안 발표 (09.27)

본원에 인턴으로 근무중인 '김현하'선생님께서 한 달간 외부 고객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였습니다. 고객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수납 후 귀가하기 까지의 과정을 진료과별로 심층분석하였고, 일정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위별 체류시간 및 대기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외래고객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점을 파악하여 그 원인과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고객이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느끼는지 계량화된 수치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알게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참가 (09.23)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설명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사회사업팀 정주영 주무와 김지현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9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8W) 조재윤 간호사



영양팀 최혜복 조리원



간호팀(6W) 신정음 간호사



영양팀 안미애 조리원



간호팀(6W) 최성민 간호사



진료부 이준형 진료부장



영양팀 최연우 조리원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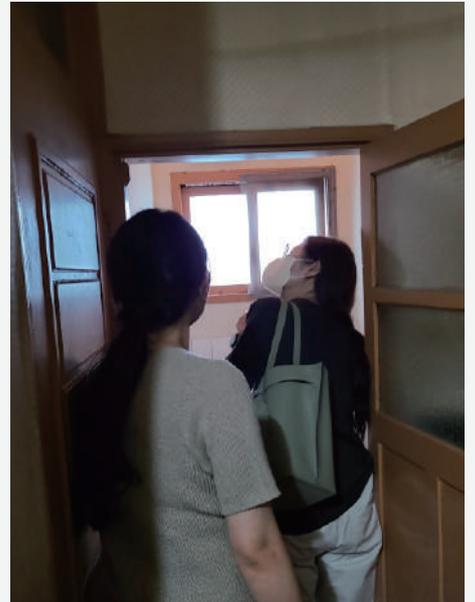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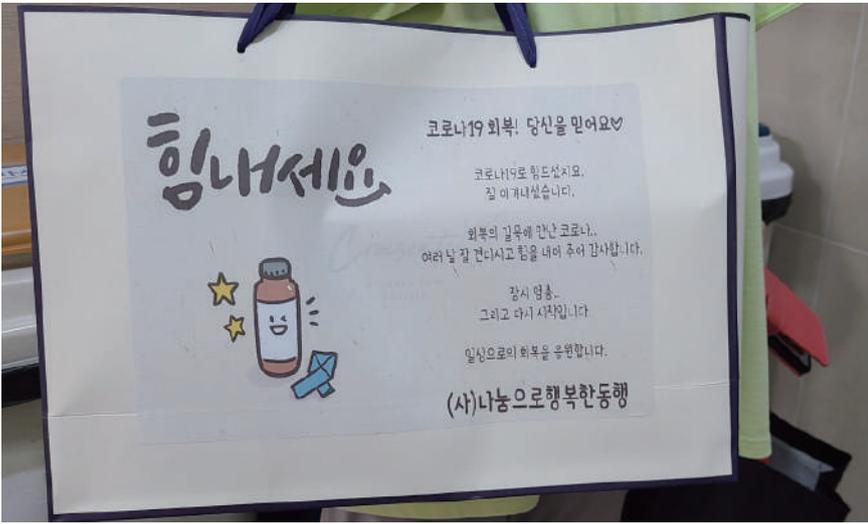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팀은 참여자 가정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두 명의 참여자께서 일상속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주셨고 거주지 내·외부 맞춤형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여자 자택으로 가정방문을 나갔습니다.



주거개선사업 (09.07 / 09.13)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코로나19 희망박스 전달식 (09.03)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에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었던 지역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후원물품으로 코로나19 희망박스를 제작하여 8월에 이어서 '코로나19 희망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미용자원봉사자 추석 감사 선물 전달식 (09.06 / 09.13)

매번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본원의 나눔에 동행해 주신 이미용 자원봉사자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참여자 '김○○'님 종결 (09.19)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퇴원 후 재가생활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김○○님께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하셨고, 지난 8월에 본원 모니터링 종결, 9월에 기타서비스가 종결되어서 9/19일에 사회사업팀 김지현 주무와 해운대구청 생활보장과 김은희 의료급여관리사님이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마무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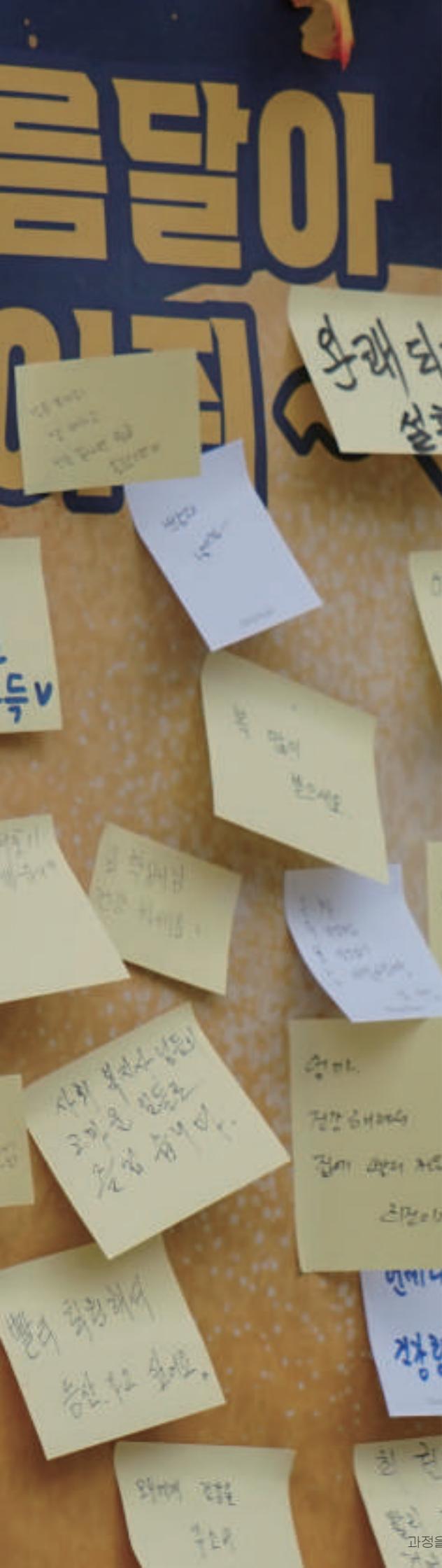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 달아달아 한가위를 부탁해 (09.08)



추석을 맞아 사회사업팀에서 참여자, 보호자, 직원이 참여하여 추석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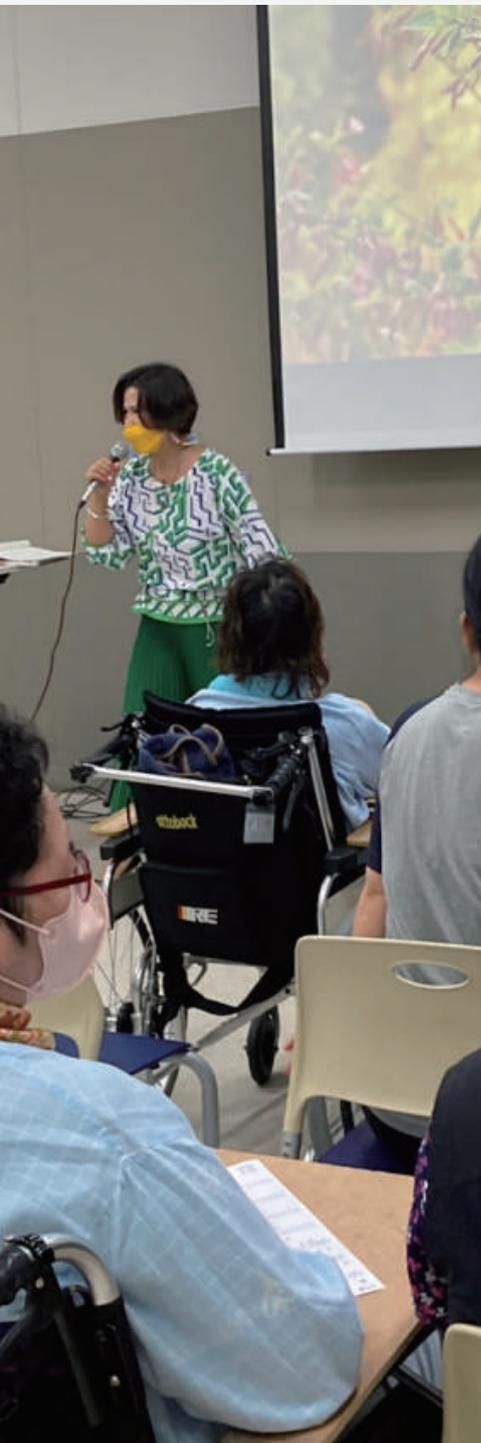
보름달에게 나만의 소원을 빌고 윷놀이,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부럼을 나누며 흥겨운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복주머니 커피 만들기 체험 및 다양한 선물을 받으며 추석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예술문화복지사 부산지회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을
모시고 추석맞이 웃음치료
노래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모두
즐거움을 느꼈고, 참여자들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음’ 레크레이션, (09.07)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하바리움 볼펜 만들기’ (09.28)

이벤트 프로그램
‘스킨로션, 립밤 만들기’ (09.29)



홍보팀장의 '브런치' 다섯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첫 직장 그만두던 날, 괜찮아! 처음이니깐.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직의 사유는 다양하다. 첫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처음을 그만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그 이유가,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공무원준비였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보통의 삶을 지냈던 나였고, 적은 급여지만 병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에 방사선사라는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그러하듯이 직장에 다니다보면 조금 더 안정된 직장, 높은 급여, 평생직장을 꿈꾼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그러해 보였다. 방사선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보건직 공무원과 의료기술직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스물여섯의 사회초년생은 스물여덟 가을이 되어서야 생각하게 되었다. 마련은 없었다. 직장생활에 문제가 없었기에 넉넉히 한 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그해 가을에 첫 직장을 그만두었다.

빌라 2층 베란다 사이로 손을 흔든다.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넨다. 슬프지만 아버지다. 살다보면 '아버지'라는 낯선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가슴 뭉클할 때가 있다. 어쩔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다가 이세상과 작별을 고해야만 했던 걸까? 오직 가족생각과 자식생각으로만 가득찬 듯 했다. 내겐 아버지가 그랬다. 내가 공무원준비를 위해 첫 직장을 그만 둔지 두 달여 만에 근는 실업자가 되었다. 당신 잘못은 아니다. 그해 경제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아빠가 다니던 회사는 중국발 저가제품에 밀려 문을 닫아야 했다. 실업자인 아버지와 아들은 며칠간 같이 아침밥을 먹었고, 고시학원으로 떠나는 나를 배웅했다.

첫 직장을 그만 둘만큼 공무원에 대한 열정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약 100일 정도다. 그해 10월 31일 그만뒀고, 이듬해 2월 14일 취업했으니 대충 그러하다. 그 백일동안 낮에는 서면(부산)의 공무원 고시학원을 다녔고, 저녁을 집에서 먹고 난 후 근처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했다. 그렇게 스물여덟이 가고 스물아홉이 되었다.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렸고, 신정을 넘어 구정이 올 때까지도 열심히 했었다. 그러던 내가 공무원에 대한 꿈을 접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이다. 아버지라는 핑계를 댔지만, 당신은 내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매일아침 아버지랑 밥을 먹고, 설거지 하는 그의 뒷모습, 배웅하는 손짓, 내색 없는 웃음에 어깨가 무거웠다. 어머니는 더 일찍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가끔 일용직으로 집안에 보탬을 주셨다. 삶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옴을 느꼈다. 이제 다시 취업해야 될 때구나.

20년이 다되어가는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구정이 지나고 나서 확실히 재취업에 대한 마음을 굳혔던 거 같다. 두 번째 직장에 면접을 봤고,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했다. 11월 12월 그리고 1월의 온전한 세 달간의 공무원 준비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물론 후회는 없다. 미련 없이 내 의지로 첫 직장을 그만두었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해봤기 때문이다.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낫다지 않은가. 젊은 날의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한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다. 공무원 학원을 혼자 다녔던

터라 점심해결이 힘들었다. 그 당시 혼자 식당 갈만큼의 배포가 없었던 나였기에 점심끼니는 늘 고민이었다. 서면을 돌아다니며 고민하다가 마주친 길거리 포장마차. 겨울에 더욱 빛이 나는 서면 포장마차에는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어묵이 즐비했다. 혼자 서서 먹으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다. 그렇게 거저말처럼 약 3달간의 점심은 포장마차 분식으로 서서 해결했다. 그러던 아주 추웠던 어느 날, 떡볶이와 어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시로 적었다. 한때 시인을 꿈꾸기도 했던 터라 어설픈 자작시이지만 적어본다.

冬友(겨울 벗)

딱딱한 겨울에 기지개를 펴고
새벽같이 검은 외투 챙겨 입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가요.

인생의 꼬챙이 끝자락에 내 몸 깊숙이 말고고
지열한 삶의 늪에 내 몸을 적시오.

굳어 있던 내 육신은 느슨해지고
내 몸 점점 황폐한 물로 얼룩져가요.

나 태어나 죽는 순간이 찰나이어늘
이렇게 마냥 누워 누군가를 기다리노라하면
날 찾는 외로운 이 저기 오는구려.

인생은 백치(百痴)이거늘
꼬챙이 끝자락에 서서 발버둥 쳐보기도 하지만
나 백치(白痴)속에 뜰겨지고 홀탕물에 몸을 담기고
붉은 용암 속에 상처 나기를 몇 차례 하노라면
우리 인생은 백치(百痴)이거늘
나 이렇게 태어나 어디 갈 곳 없는 외로운 이의
따뜻한 한 끼가 된다면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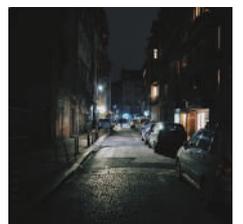
나 오늘 또 다시 태어나
이 엄동설한
갈 곳 잃은 내 벗 기다리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_김수현<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마음의숲)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미국 심리학교 교수 닐 로스가 주장했다. 그렇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후회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미뤘던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 하나가 미처 시작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수현 작가의 말처럼 후회가 아닌 평가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걱정이 아닌 판단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스물여덟, 스물아홉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그해 점심은 유난히 따뜻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2년 09월 30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